

조선시대 서울 경관명소 분포와 인식의 비교연구 : 팔경시, 진경산수화, 풍속지를 중심으로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Landscape Attractions of Seoul in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Eight Scenery Poems, True - View Landscape Paintings and Folklore Literatures

박수지 Park Suji¹⁾, 김한배 Kim Hanbai²⁾, 이승희 Lee Seunghee³⁾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social cognition of landscape attractions of Seoul in Joseon Dynasty through old cultural media such as 'Eight Scenery Poems',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and 'Folklore Literatures'.

In the 'Eight Scenery Poems', while the people in earlier period depicted the institutional places with 'regional representing mode', people gradually changed their views to Han River with 'panoramic viewing mode'.

In the 'True-View Landscape Painting' of the latter period, 'Eight Sceneries of Jangdong' and 'Scenic Beauties of Seoul and its Vicinity' became the visual evidences of townscapes. While the former depicted the memorial sites of Seoul in the similar manner of 'the regional mode', the latter depicted the Han River view in 'the panoramic mode'.

In the 'Folklore Literatures' including 'Hanyangga', the downtown with marketplaces were introduced as the new lively landscape attractions of Seoul, got more social cognition of the common people finally.

Keywords: Regional Representing Mode, Panoramic Viewing Mode, Eight Sceneries of Jangdong, Scenic Beauties of Seoul and its Vicinity, Hanyangga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울의 지역적 고유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실로서의 물리적 원형을 찾는 것과 함께 시대별 사람들이 느꼈던 서울의 모습, 즉 원형적 경관의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조선시대 서울의 이미지는 원형적 이미지로서 현대 서울 경관 이미지의 뼈대가 되고 지역성 인식의 바

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박사과정 수료(제1저자) | Ph. D. Candidat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 of Seoul | Primary Author | sjpark27@hanmail.net

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교수(교신저자) | Prof.,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 of Seoul | Corresponding Author | hbkim@uos.ac.kr

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박사과정 수료 | Ph. D. Candidat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 of Seoul | goodsalad@uos.ac.kr

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당시 서울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대표 경관과 탐방 명소들을 포괄하는 ‘경관 명소’들의 분포와 인식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중적인 경관 자원들에 대한 인식 상황은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경관 관련 시가(詩歌), 그림, 문헌 등 대표적인 문화적 매체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비학술적 문헌을 통한 집단적 이미지의 연구는 현상학적 경관 연구의 고유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이규목 2002; 임승빈 1991).

이에 따라 본 논문은 1차적으로 조선시대의 대중적인 문학, 회화, 풍속지 등에 등장하는 장소들을 서울의 지도상에 명기하여 당대 서울 사람들이 가지 있게 느꼈던 경관명소들의 분포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려 한다. 2차적으로 그러한 명소들의 인식 특성을 매체별, 시대별로 종합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울의 총체적 경관 이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고려 말부터 시작되었던 팔경시와 팔경 그림들은 중세에서 근대 초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대표 경관을 선정하고 표현하는 동아시아 고유의 문화양식이었다는 점에서 경관명소 연구에 대표성을 갖는 핵심적 연구대상이다. 진경산수화는 조선 중기, 특히 겸재 정선에 의해 화풍이 정립되었고 우리나라 곳곳의 명승들이 그림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중기 이후 경관명소의 실체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주로 편찬된 풍속지와 가사문학들은 경관명소들을 배경으로 한 세시풍속을 다루고 있어 이 장소들과 관련된 일반 민중의 도시활동과 여가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연구자료가 된다.

2. 선행연구 검토

관련 선행연구는 조선시대의 도시경관, 장소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조선시대 당시의 경관에 대해 이규목(1994)은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서 경관 분석가의 입장에서 당시 여러 매체를 통해 그려 놓은 도시에 대한 서술과 묘사를 토대로 도시 경관의 형성과정, 특성, 변화를 밝혔다. 당시의 도시 경관에 대한 자료는 주로 실학파들의 저술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들의 시각으로 도시 환경이나 미관이 서술되었다.

최기수(1994)는 서울의 원형경관을 ‘경(景)’과 ‘곡(曲)’으로 나누어 보면서 팔경시와 팔경도 등을 통해 ‘경’의 사례를 밝히고 사상적 기원을 제시하였으며, 구곡가와 구곡도 등을 통해 곡의 문화적 기원을 밝히고 서울의 구곡을 발굴한 바 있다.

김한배(1998)는 ‘우리 도시의 얼굴 찾기’에서 서울의 경관과 그 이미지 변천을 물리적 환경과 도시도형, 대표 경관의 변화 속에서 찾아보려 하였고, 시대의 변천 속에도 유지되는 것은 자연 경관과 역사 경관이 고 변화하는 것은 생활 경관이라 하였다.

홍운순, 이규목(2002)의 ‘한양 원형 경관의 이원적 층층성 연구’에서는 한양의 원형 경관을 비가시적 관념인 음양적 관점으로 도시의 입지, 거점 시설의 배치, 토지 이용, 가로 환경의 구성, 건축 환경과의 관계가 층층적으로 교차·누적됨을 밝혔다. 음양의 이원적 관계는 물적 환경 측면뿐 아니라 도시의 기능과 활동, 의미와 체험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조선시대의 거시적인 도시의 구조와 지형 경관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현대로 오면서 미시적 측면에서 주로 특정 가로나 특정 장소에서 시지각적, 구조적 인식의 특성과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실 위주의 역사적 기록이나 전통사상을 통해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당대 도시 사람들의 도시 경관에 대한 생생한 감성과 인식을 파악하기에는 거리가 있었다.

이들 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서울 사

람들이 느꼈던 서울의 경관적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당대의 문학, 회화, 풍속지 등 다양한 표현 매체들을 통해 나타나는 당대 사람들의 경관 명소들의 인식 양상을 종합하여 실증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을 병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들 대부분 매체는 조선시대 사회 상류층의 시각에 편중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풍속지와 풍속기사들은 개방적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평민들의 인식을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편중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증적 측면에서는 각 문헌에 등장하는 경관명소들의 지리적 분포를 지도상에 명시하여 매체별 분포 특성을 비교할 것이고, 해석적 측면에서는 각 경관명소들의 입지적 경관특성과 인식 및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려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 초기 서울 정도부터 조선 말 대한제국 선포 이전까지의 조선시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한양 성곽을 경계로 그 안쪽인 도성 내부와 이른바 경교(京郊)로 불렸던 도성 외부, 그리고 조선 초부터 유상(遊賞)의 대상이었던 한강 주변부를 포함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서울과 그 근교를 포함하는 팔경시와 진경산수화, 풍속지, 그리고 서울을 대상으로 한 가사문학인 「한양가」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한다.

팔경시는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서 꾸준히 창작되어 왔으므로 서울을 대상으로 한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 조선 후기의 팔경시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다. 진경산수화는 주로 겸재 정선에 의해 주도되

었으므로 시기적으로는 그가 작품 활동을 하던 조선 중후기로 한정된 서울 대상의 진경산수화들에 연구가 집중된다. 그리고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풍속지와 가사문학들은 주로 조선 후기 실학사상과 더불어 성행하였으므로 이 시기에 발간되었던 것들에 한정되어 연구될 것이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팔경시와 진경산수화, 풍속지 등 경관과 관련한 고전 문헌 매체들과 관련 연구 문헌들에 나타나는 경관명소들을 연구하는 문헌 연구가 중심이 된다. 이를 통해 이들 경관명소들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공간분포 연구, 그리고 시와 그림 등의 표현을 통해 경관 인식을 파악하는 내용 분석 연구 등 양대 축의 연구가 진행되고 이를 종합하여 조선시대 서울 경관명소의 인식 특성을 규명한다.

내용 분석에 있어서는 팔경시와 진경산수화, 풍속지 등의 표제부와 내용을 검토하여 경관명소의 성격을 분류한다. 내용을 매체별, 시대별로 비교하여 경관적 측면에서 그 인식 양상을 해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조선시대 서울에서 선호되었던 경관명소에 대한 인식의 시대별 변화 추이와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매체별 연구

먼저 경관을 주제로 한 문학매체로 ‘팔경시’란 자연의 승경(勝景)을 여덟 가지 경치로 구분하여 시화(詩化)한 산수시(山水詩)⁴⁾로 중국 ‘소상팔경시’가 그 기원으로 인정된다. 서울 대상의 팔경시는 조선 초 ‘신

도팔경(新都八景, 정도전)에서 시작하여 조선 후기 ‘국도팔영(國都八詠, 정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지어졌다. 이는 한 지역의 특징을 구성하는 대표 경관들을 집약한 것으로 8경, 10경, 12경 등 다양한 수의 팔경시들이 있다.

진경산수화는 조선의 산수를 사실적 묘사 기법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18세기 전반 겹재 정선에서 절정을 이룬다. 우리나라 산하를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담은 그의 진경산수화는 주변의 산하에서 시작되었다. 집 주변인 백악산에서 익힌 사생 솜씨를 금강산과 영남지방의 풍경으로 확대시켜 진경산수화풍을 정립한 것이다.⁴⁾ 앞의 팔경시와 연계하여 「장동팔경첩」, 「경교명승첩」, 「양천팔경첩」 등 지역의 대표 경관들을 집약한 화첩들을 팔경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주로 조선 후기에는 실학사상의 대두와 함께 많은 풍속지들이 편찬되었다. 「한경지략」은 조선 정조 때 수도 한성부의 역사와 모습을 자세히 적은 작자미상의 부지(府誌)로 성곽, 궁실뿐 아니라 산천·명승·시전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도잡지」는 조선 후기에 유득공(柳得恭)이 지은 세시풍속지이며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보다 먼저 집필된 것으로 여러 문물제도와 풍속세시를 약술하고 있다.⁵⁾ 「열양세시기」는 순조 19년(1819년) 김매순(金邁淳)이 한양의 세시풍속과 연중행사를 기록한 책이다. 여기서 ‘열양’은 한양, 곧 서울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던 궁중 및 관청, 민간의 세시풍속 80여 종을 월별로 구분하여 적고 있다(권영민 2004).

「동국세시기」는 조선시대 정조·순조 때의 학자

홍석모가 음력 정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세시풍속을 월별로 기록하였다.⁶⁾ 마지막으로 「한양가」는 1844년(헌종 10년) 한산거사(漢山居士)가 지은 풍물가사로 조선 왕도인 한양성의 연혁·풍속·문물·제도·도국(都局) 및 왕실에서 능(陵)에 나들이하는 광경 등을 노래하였다.⁸⁾ 앞서의 팔경시를 포함하는 이와 같은 매체들은 경관명소 연구를 위한 원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이들 원문들과 함께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이들 봉건시대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양식들을 포괄적으로 ‘성시문학(城市文學)’이라고 부른다.⁹⁾

국문학자 안장리(2009)는 ‘서울 팔경시 연구’ 등 다양한 팔경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그는 조선 후기의 왕들은 여기서 서울의 팔경을 보다 다양화하여 ‘청풍계’ 등 사대부들의 개별 은거 공간까지 팔경시의 내용에 포함하게 된 것을 밝혔다. 미술사학자 조규희(2012)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조의 ‘국도팔영’을 통해서 지금의 서촌을 포함하는 서울의 북리를 팔경으로 포함함으로써 한양 최고 경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그는 또한 팔경시와 겹재의 진경산수화에 자주 등장하는 팔경조망식의 그림, 그리고 동시대에 성행했던 차경(借景) 형식의 원림 조성이 상호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조규희 2006a, 2006b, 2008). 미술사학자 강관식(2006)은 「장동팔경첩」 제작의 배경적 연구로 겹재 정선 집안의 광주 정문과 장동 김문의 세교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겹재의 「장동팔경첩」 등의 지역 기록화는 그의 가문과 장동 김씨가

4) 팔경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2013년 12월 17일 검색).

5) 진경산수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2013년 12월 17일 검색).

6) 한경지략, 경도잡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2013년 12월 17일 검색).

7) 동국세시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2014년 1월 22일 검색).

8) 한양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2013년 12월 17일 검색).

9) 성시문학은 조선 전기의 「신도팔경시」, 후기의 「국도팔영시」와 같은 집경제영시들과 후기의 대표적 가사문학인 「한양가」, 「한영오백년가」 등이 대표적임. 특히, 18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음(권정은 2013).

문과의 교류에 기반하여 장동 김문의 연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경관적 측면에서의 연구로, 강영조·배미경(2002)은 겸재의 진경산수화 100점을 대상으로 하여 그림에 묘사된 조망점과 관찰된 조망 행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기호(2009)는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 중 10점의 시화도를 대상으로 조망 지점을 찾고 그로부터 그림에 표현된 대상을 실제 경관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양천 일대의 진경산수화들은 겸재가 현장에서 있던 양천 현아의 뒷산인 궁산 일대가 주 조망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노재현, 장일영(2008)은 총석정을 대상으로 한 실경산수화들을 대상으로 그림의 시점과 내용, 표현 방법 등을 분석하여 ‘풍경’은 ‘경관’에 비해 개인적이며 체험적 지각이며 경관에 비해 한시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팔경시와 진경산수 그림의 내적 연관성, 그리고 실제 진경산수화에 나타난 조망 특성에 주목하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선호하던 경관명소의 분포와 인식의 양상을 비교 연구하려 한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에 나타난 도시 사회 변화가 평민들의 경관명소 인식에도 변화를 주었으리라고 보고 당시의 풍속지와 풍속가사를 통해서 그 양상을 확인하려 하였다.

2. 연구의 개념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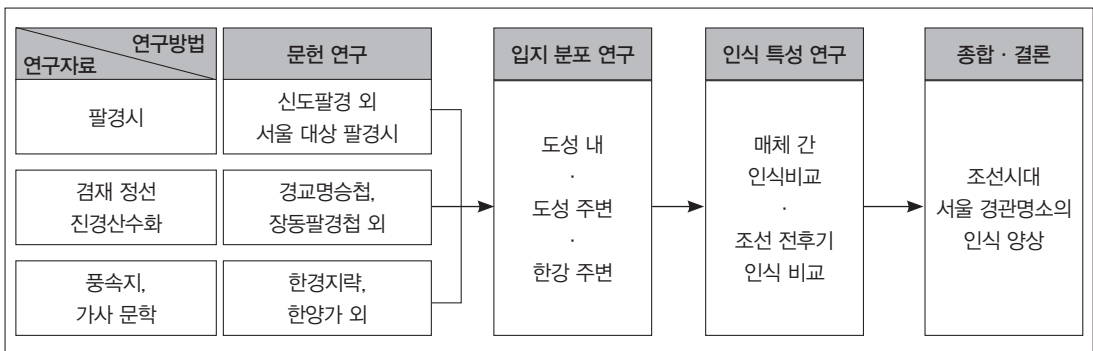
연구 자료는 이미 서술한 대로 서울을 대상으로 한 조선 전후기의 팔경시,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 역시 조선 후기의 풍속지와 가사문학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1차적으로 이상의 문헌 자료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한 경관명소들의 지리공간적 ‘입지분포 연구’가 수행될 것이며, 2차적으로는 1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체별, 시대별로 대상 경관과 표현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사회문화적 의미와 조선 전후기의 인식 양상의 차이를 해석하는 ‘인식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을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전반의 서울 경관명소의 분포와 인식 양상을 파악하여 제시할 것이다.

III. 팔경시를 통해 본 경관명소의 분포와 인식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팔경시는 조선 초 서울 정도와 도성 공간 구성을 선도하였던 정도전에 의해 제시된 ‘신도팔경’에서 시작하여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의 ‘국도팔영’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이어졌다.

이 팔경시들은 조선 초기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이를 조선 후기에 보완한 「동국여지비고」

그림 1 _ 연구의 개념틀



에 중점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중에서도 서울 팔경시에 대한 종합적 연구인 안장리(2009)의 논

문에 등장하는 팔경시들을 중심으로 조선 초기, 중기, 후기 각각 3~4편의 대표적 팔경시들의 표제부를 중

표 1 _ 서울 팔경시에 등장하는 경관명소의 분포

시기	매체 (저자)	한강 이북		한강 주변			기타 외곽
		도성 내부	도성 주변	동호·상류	남호(용산강)	서호	
조선 초기 (1393~ 1567 선조 즉위)	신도팔경 新都八景 (정도전 鄭道傳)	도성궁원 (都城宮苑) 열서성공 (列署星拱) 제방기포 (諸坊碁布)	기전산하 (畿甸山河) 북교목마 (北郊牧馬)	동문교장 (東門教場)	남도행인 (南渡行人)	서강조박 (西江漕泊)	
	한도십영 漢都十詠 (서거정 徐居正)	중가관등 (鍾街觀燈)	흥덕상화 (興德賞花) 장의심승 (藏義尋僧) 반송송객 (盤松送客) 목멱상화 (木覓賞花)	입석조어 (立石釣魚) 전교심방 (箭郊尋芳) 제천완월 (濟川翫月)		양화답설 (楊花踏雪)	
	남산팔영 南山八詠 (정이오 鄭以吾)	운횡북궐 [(雲橫北闕 척현관등 (陟巘觀燈)]	암저유화 (巖底幽花) 영상장송 (嶺上長松) 삼춘담청 (三春踏靑) 구일등고 (九日登高) 연계탁영 (沿溪濯纓)		수창남강 (水漲南江)		
조선 중기 (1567~ 1724 영조 즉위)	담담정 십이영 淡淡亭 十二詠 (이승소 李承召)				용산어화 (龍山漁火) 반기조설 (盤磯釣雪) 옹촌신연 (瓮村薪煙) 남교안성 (南郊雁聲)	마포야우 (麻浦夜雨) 울도청람 (栗島晴嵐) 양화추월 (楊花秋月) 희우사양 (喜雨斜陽) 잠령초가 (蠶嶺樵歌)	관악춘운 (冠岳春雲)
	근가십영 近家十詠 (김상헌 金尙憲)	청풍계(淸風溪) 백운동(白雲洞) 대은암(大隱巖) 회맹단(會盟壇) 세심대(洗心臺) 삼청동(三淸洞) 불암천(佛巖川)	목멱산 (木覓山) 공극산 (拱極山북악) 필운산 (弼雲山인왕)		제천완월 (濟川翫月) 전교목마 (箭郊牧馬) 교장시에 (教場試藝)		
	한도팔영 漢都八詠 (이민성 李民成)	도성궁화 (都城宮花) 중가관등 (鍾街觀燈)	기전산하 (畿甸山河) 반송송객 (盤松送客)			서강조운 (西江漕運)	

표 1 _ 서울 팔경시에 등장하는 경관명소의 분포(계속)

시기	매체 (저자)	한강 이북		한강 주변			기타 외곽
		도성 내부	도성 주변	동호·상류	남호(용산강)	서호	
조선 중기 (1567~ 1724 영조 즉위)	송계팔영 松溪八詠 (최명길 崔鳴吉)		삼각백운 (三角白雲) 도봉홍엽 (道峯紅葉) 수락청풍 (水落靑楓) 아차제설 (峨嵯霽雪) 원릉석조 (元陵夕照) 석교완월 (石橋玩月) 천정심승 (天定尋僧)	전교연초 (箭郊煙草)			
	국도팔영 國都八詠 (정조正祖)	필운화류 (弼雲花柳) 삼청녹음 (三清綠陰) 자각관등 (紫閣觀燈) 청계간풍 (淸溪看楓) 통교제월 (通橋霽月)	반지상련 (盤池賞蓮) 세검빙폭 (洗劍冰瀑)	압구범주 (押鷗泛舟)			
조선 후기 (1724~ 1897 고종 대한제국 선포기)	구호십 육영 鷗湖十 六詠 (정래교 鄭來僑)		삼각효운 (三角曉雲) 도봉만하 (道峯晚霞) 종남석봉 (終南夕烽) 문수낙조 (文殊洛照) 아차미우 (峩嵯微雨)	이릉송백 (二陵松柏) 쌍포누대 (雙浦樓臺) 은사신종 (恩寺晨鍾) 북안화류 (北岸花柳) 전사구로 (前沙鷗鷺) 이탄풍범 (梨灘風帆) 독도신창 (蘓島新漲) 전교대설 (箭郊大雪) 신촌모연 (新村暮烟)	용연어화 (龍淵漁火) 용문제월 (龍門霽月)		
	침학정십경 瞻鶴亭十景 (신경준 申景濬)			구정대사 (鷗亭臺榭) 학야구승 (鶴野溝塍) 상평행객 (霜坪行客) 하사귀승 (霞寺歸僧) 공상채엽 (公桑採葉) 능실장빙 (凌室藏冰) 기주망집 (基洲網集)	동진만도 (銅津晚渡) 와서석등 (瓦署夕燈)		관수화층 (冠岫花層)

자료: 연구 대상 매체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심으로 장소와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1. 팔경시에 나타난 팔경명소의 분포

팔경시에 표현된 경관명소의 전체적인 공간 분포는 도성 주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성 내부, 한강 주변의 동호·상류, 남호, 서호, 기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지명으로 가장 많이 표현되었던 곳은 남산과 서촌 지역의 백운동과 청풍계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복궁과 도성 주변의 세검정, 삼청동, 종로, 그리고 한강 주변인 마포, 양화진, 제천정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서울의 대표적인 산인 북악산, 인왕산 등의 내사산과 관악산, 삼각산, 도봉산, 수락산, 아차산 등 외사산을 포함한 외곽 산봉우리들이 포함되었다.

2. 팔경시를 통해 본 시기별 팔경명소의 인식 양상

‘신도팔경’으로 시작되는 조선 초기 팔경시에 나타나는 경관명소들은 도성 내의 궁궐과 관청, 시가지의 질서 있는 구성 등 조선 건국의 통치 이념을 표현하는 중심 장소였으나, 중기 이후 시대가 지날수록 대상 영역의 범위는 넓어지고 유형도 민간 거주지와 누정, 별서를 포함하는 공간들로 다양해졌으며 장소와 행위들이 결합하여 보다 생활과 밀착된 장소들로 구체화되어갔다.

한강의 명승, 정자 중에서도 특히 ‘제천정’과 ‘양화진’이 많이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하여 중국 사신 접대가 끊이지 않았고 대표적인 향유이 주로 동호의 ‘제천정’을 출발하여 서호의 양화진(희우정, 현재 망원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

이었다(이종목 2006; 이국진 2012). 동호는 이 밖에도 살곶이벌(현재 성동구 성수동, 화양동 일대)에 있던 근마목장(箭郊牧馬)과 훈련원(東門教場)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명소로 지속적으로 인식되었다. 서호는 경관적으로 뛰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특히 삼남의 세곡과 물산이 집결하는 항구의 활동(西江漕泊, 西江漕運)들이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시대의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어진 서울 대상의 팔경시는 크게 보아 특정 조망점을 전제하지 않고 한양 전체, 또는 일정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 자원들을 열거한 ‘지역팔경형’ 팔경시와 누정 등 특정 조망점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바라보이는 주변 사방의 경관 대상들을 열거하는 ‘조망 중심형’ 팔경시로 양분할 수 있다.¹⁰⁾

조선 초기의 건국 공신 정도전에 의해 제시된 ‘신도팔경’은 전자의 대표적 사례로 서울 및 경기지역 전체의 대표 경관들을 통해 조선의 건국과 통치의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지역팔경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 요소인 산천의 풍치와 인문적 요소인 사람들의 행태가 인식되었다. 도성 내부의 궁궐들(도성 궁원), 육조거리와 한성부 5방의 여러 관아가 정연히 배열된 모습(열서성공, 제방기포)을 묘사하는 등 통치이념을 공공적 경관 질서를 통해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남산팔영」은 남산이라는 특정 조망점에서 바라다 보이는 경관 대상들을 열거했다는 면에서 앞의 지역팔경형보다는 조망팔경형의 초기 형태라고 보인다. 남산 주변 산천경계의 풍치를 표현하였는데 북쪽 산기슭의 구름 속에 펼쳐져 있는 궁궐의 전경(운흥북궐), 산마루에 우거진 낙락장송의 풍치, 장마철에 한강에 넘쳐흐르는 물길과 강변 풍경(수창남강) 등을 표현하였다.

10)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안장리(2009)는 한국의 팔경시를 ‘폐쇄적 유형’과 ‘개방형 유형’으로 나누어, 전자를 ‘지역을 한정하여 지역 내 여덟 개의 경관을 선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거처나 누정을 중심으로 조망되는 여덟 개 경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용어상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조선 중기에도 주로 '지역팔경형'의 형태가 일부 유지되기는 하였으나 조선 초기보다 미시적인 도성 내의 주거 지역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김상헌의 '근가십영'에서는 본인이 거처하던 집 주변인 현재 서촌의 마을 경관을 이루는 경관명소들이 열거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집에서 바라다보이던 궁극산(북악산)과 목멱산, 필운산(인왕산), 본인이 거주하거나 방문하여 즐기던 명소들인 도성 내부의 청풍계, 백운동, 대은암, 회맹단, 세심대, 삼청동, 불암천 등이 등장한다. 주로 이들 장소에서의 풍경에 대한 조망과 그곳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을 표현하였다. 이는 당시 김상헌을 필두로 권세를 얻어가던 장동 김씨 문중 세력의 지역 기반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장소들은 후에 겸재의 「장동팔경첩」에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된다.

조선 후기에는 '지역팔경형'과 '조망팔경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나, 민간에서 조영한 누정에서 바라본 주변 경관을 읊은 '조망팔경형'의 팔경시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특히 정조 임금에 의해 제작된 '국도팔영'에서는 지역팔경형 표현이기는 하나 궁궐 근처 서촌의 거주지 경관인 '청풍계의 단풍놀이(청계관풍)', '필운대의 꽃과 버들(필운화류)', 북악 '삼청동의 시원한 녹음(삼청녹음)' 등이 표현된다. 이들 경관명소들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중후기에 서울 도성 내부를 중심으로 등장한 소위 '성시원림(城市園林)'들로, 궁궐 주변부 마을의 상류 주택에 원림 공간을 만들고 시회(詩會) 등 다양한 활동에 이용하게 된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조선 초기에 궁궐, 관아, 한성부 등 국가적 차원의 경관을 묘사한 것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같은 작품에서는 '조망팔경형'적인 표현도 일부 보이는데 '자하골 창의문에서 보는 관등놀이(자하관등)'와 시가지 상가인 '광통교에서 보는 비 갠 후의 맑은 달(통교제월)'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한강 등 서울의 경관명

소에 귀족, 관료들의 개인 정자가 많이 지어지면서 이들 정자를 조망점으로 하여 조망 대상 경관을 읊은 소위 '조망팔경형' 팔경시가 많이 늘어난다. 대표적 예가 동호의 정자에서 바라본 팔경을 읊은 정래교의 '구호십육경', 신경준의 '침학정십경' 등이다.

IV. 진경산수화를 통해 본 경관명소의 분포와 인식

서울의 경관명소들이 진경산수화를 통해 재현되고 유통되었던 것은 조선 중후기,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년)이 활동하였던 시기에 집중된다. 본 논문에서 진경산수화를 통한 경관명소의 연구는 정선의 작품 중에서 서울과 그근교를 대상으로 하는 「장동팔경첩(壯洞八景帖)」,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양천팔경첩(陽川八景帖)」, 「퇴우이선생진적첩(退尤二先生眞蹟帖)」과 그 외 서울의 경관명소들을 표현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리 공간 분포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한강 이북의 도성 내부와 외부, 한강 주변부는 서울 외곽 지역의 광주군, 양평군과 현재 서울 내부의 동호와 경호, 서호, 행호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겸재의 진경산수화에 나타난 경관명소의 분포

명승, 명소들의 전체적인 공간 분포는 도성 내부가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서촌지역인 청운동, 옥인동 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경관적 우수성 외에 겸재의 고향인 동시에 학연, 자연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 외 한강 주변에서는 서호 특히 양화진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서호의 대표 경관이자 겸재가 현감으로 근무했던 양천에서 가시권 내의 가까운 명소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호 다음으로는 양수리 부근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겸재의 학연인 장동 김문의 별서, 서원들이 이 부근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표 2 _ 겸재의 진경산수화에 등장하는 경관명소의 분포

시기	조선 중후기: 겸재 정선(謙齋 鄭澈, 1676~1759년)			
매체	장동팔경첩(壯洞八景帖) 1, 2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 上, 下	양천팔경첩 (陽川八景帖)	퇴유이선생진적첩 (退尤二先生真蹟帖, 기타)
한강 이북	청운동(자하동紫霞洞, 청송당聽松堂, 청풍계 淸風溪, 대은암大隱岩, 독락정獨樂亭, 창의문彰義門, 백운동白雲洞) 세종로동(취미대翠微臺) 옥인동(수성동水聲洞, 청위각淸暉閣) 누상동(필운대弼雲臺)	세종로동(은암동록隱巖東麓) 옥인동(인곡유거仁谷幽居) 청운동(장안연우長安烟雨, 장안연월長安烟月)		동소문(東小門) 세종로동(경복궁景福宮) 옥인동(옥동척강玉洞陟崗, 삼승정三勝亭, 삼승조망三勝眺望, 동대상춘東台賞春) 세검정(洗劍亭)
	도성 주변			남산(목멱산木覓山) 인왕산(인왕제색도 仁王霽色圖)
한강 주변	광주군 양평군	광주시(녹운탄綠雲灘, 우천牛川) 양평군(독백탄獨柏灘) 구리시(석실서원溪湖石室書院) 삼주삼산각三州三山閣)		
	동호	광진구(광진廣津) 송파구(송파진松波津) 강남구(압구정狎鷗亭)		
	남호 (용산강)	용산구(목멱조동木覓朝墩)	동작구(동작진銅雀津)	동작구(동작진銅雀津)
	서호	마포구, 서대문구 (안현석봉鞍峴夕烽) 마포구-난지도 (금성평사錦城平沙) 마포구-절두산 (양화환도楊花喚渡)	마포구(양화진楊花津) 영등포구(선유봉 仙遊峰)	마포구-절두산 (양화진楊花津) 영등포구-선유도 (선유봉仙遊峰)
	행호	강서구 가양(공암층탑孔岩層塔) 강서구(종해청조宗海聽潮) 강서구, 마포구 (소악후월小岳候月) 고양시-덕양산 (행호관어杏湖觀魚)	강서구(이수정二水亭, 소요정逍遙亭, 소악루小岳樓) 고양시(귀래정歸來亭) 고양시(낙건정樂健亭)	강서구(이수정二水亭, 소악루小岳樓) 고양시-덕양산(쌍견정) 고양시-창릉전(귀래정 歸來亭)

있었기 때문에 파악된다(최원수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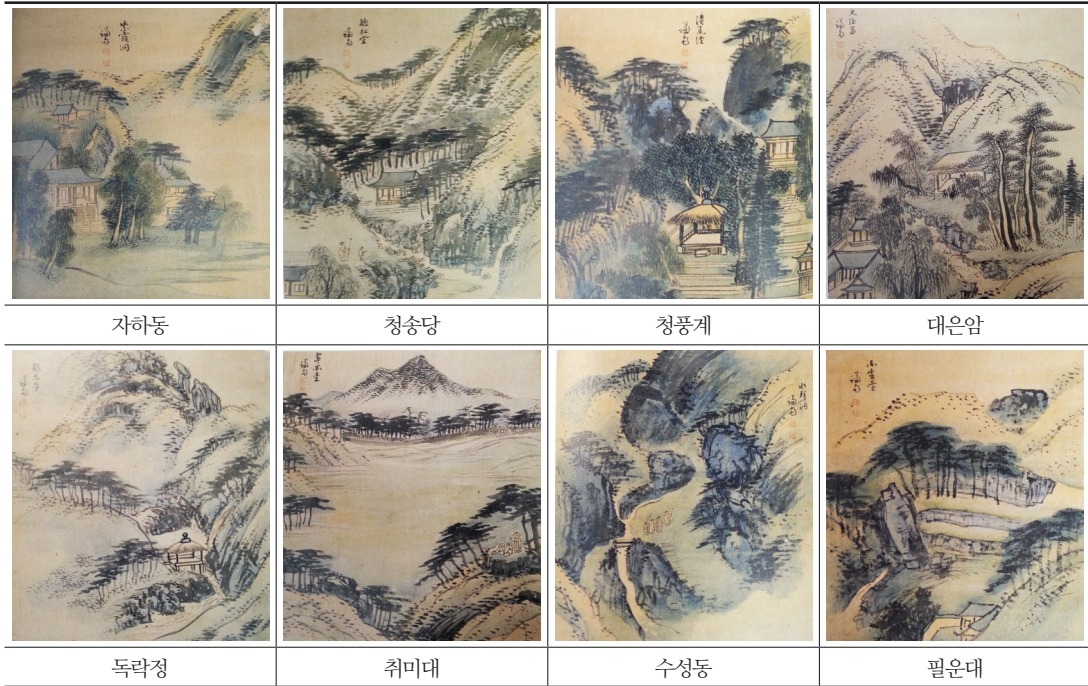
2. 겸재의 진경산수화에 나타난 경관명소의 인식 양상

겸재 정선이 그린 서울의 진경산수화는 크게 두 가지 시각적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유형은 「장동팔경첩(壯洞八景帖)」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근중경적 시각에서 특정 주택이나 정자, 원림들을 강조하여 그

린 것이고, 또 한 유형은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 조망점에서 바라본 개방된 원경의 풍경이 팔경형식과 유사하게 그려져 있는 경우다.

전자의 대상은 주로 ‘청풍계’, ‘청위각’, ‘독락정’, ‘인왕산’ 등과 같은 독립적 장소들로 서촌과 장동 김문을 대표하는 기념적 장소들이며 그림첩의 구성으로 보아 팔경시의 유형 중 ‘지역팔경형’ 팔경시와 유

그림 2 _ 「장동팔경도첩」에 수록된 그림(일부)



자료: 최완수, 2009.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3 _ 「경교명승첩」에 수록된 그림(일부)



자료: 최완수, 2009. 간송미술관 소장.

사하다. 후자는 주로 겸재가 양천 현감으로 재임할 당시에 그려졌던 그림들로 한강 상류를 그린 그림들

은 주로 배 안을 조망점으로 하였고, 중하류의 그림들은 주로 양천 현아의 뒷산인 '궁산'과 그곳의 누정인

‘소악루’를 주 조망점으로 하여 그곳에서 보이는 각 방향의 한강과 연안의 언덕이나 섬들, 배경의 먼 산으로 이루어진 파노라미한 원경의 경관을 담고 있다(정기호 2009). 즉, 「경교명승첩」에서 볼 수 있는 그림 대부분의 구도는 특정 조망점에서 본 광각의 시각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조망팔경형’ 팔경시의 구성과 유사하다.

「장동팔경첩」 이외에 겸재가 그린 서촌의 장소들은 순수하게 풍경 감상을 위해 찾은 장소들로 대부분 산 중턱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여 시가지 방향으로 개방된 조망을 가진 ‘조망형 경관명소’(삼승조망, 은암동록, 동대상춘)들이다. 이들 조망형 경관명소에는 대부분 개방된 조망 속의 경관 대상들을 팔경식(八景式)으로 묘사하고 있어 역시 ‘조망팔경형’ 팔경시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미술사학자 조규희(2006a, 2006b, 2008)는 겸재의 진경산수화가 대체로 이러한 넓은 시야의 조망을 즐겨 담게 되고 조망을 정원에 끌어들이는 차경(借景) 양식의 원림들이 동시대에 성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대의 사대부 계급들이 사유 토지를 증식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려 했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교명승첩」에 그려진 한강 일대 그림의 구도는 대체로 근경의 수면을 앞에 두고 중경에 대상 경관을 배치한 후 후면 원경에 서울 주변의 관악산, 남산 등 유명산을 배치하여 대상지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등 팔경형의 포괄적 조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상교통의 편의성으로 행인들이 운집하는 동작나루 등 나루터들이 자주 선택되어 경관명소들의 사회적 장소성을 증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서원(석실서원)이나 별서(삼주삼산각), 분원(우천) 등 문화적 의미가 높은 곳들이 선정되었다. 이 문화적 장소들은 장동 김문의 거점적 장소이기 때문에 선정된 듯하다. 특히 이들 「경교명승첩」의 그림 대부분은 겸재의 문우(文友)인 시인 이병연과 시화

상간(詩畫相看)의 약조하에 그림마다 표제시가 첨부되면서 인문적 안목으로 표현된 경관들이었다(최완수 2009; 조규희 2012).

이들 문화 집단이 찾아내고 명소화한 장소들의 가치는 경관적 탁월성에 더해 당시의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당대 주류 세력들의 사회적 힘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 절에서 나타난 정조의 「국도 팔영」에 ‘청풍계’ 등 서촌 일대의 경관명소들이 포함된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V. 풍속지와 가사문학을 통해 본 경관명소의 분포와 인식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풍속지와 가사문학의 용성은 시기적으로 대부분 조선 후기 실학의 대두와 흐름을 같이한다. 여기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풍속지 4종(「한경지략」,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과 조선 후기 가사문학 중 「한양가」를 분석하였다.

풍속지는 대부분 경관명소에서 행해지는 일상적 활동들과 축제적 성격의 공공 세시풍속을 다룬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장소 자체의 외관적 매력에 더해서 이런 공공성이 강한 활동들이 장소성을 강화하여 도시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 풍속지, 가사문학에 나타난 경관명소의 분포

경관명소의 전체적인 공간 분포는 도성 내부(53곳)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도성 주변(14곳), 한강 주변의 동호·상류(10곳), 서호(6곳), 기타 외곽(1곳), 남호(1곳)의 순으로 분류되었다. 유형별로는 산천경개와 궁궐, 누정, 단, 묘, 시장, 절, 다리 등의 경관 요소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양가」에서는 시가지의 상업 공간들을

포함하여 경관명소들도 다양하게 언급되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나 상업 활동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풍속지와 가사문학을 통해 본 서울의 경관명소 인식 양상

1) 풍속지에 나타난 경관명소의 인식

풍속지와 가사문학 작품은 민중의 일상 생활이 경관명소의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경지략」

의 내용에는 도성 내부에서 물 맑고 바위 좋은 경치가 표현된 ‘옥류동’과 ‘수성동’(인왕산), 꽃구경하기에 좋은 ‘유란동’(백악산), 복숭아나무가 많은 ‘도화동’(백악산)과 개울과 폭포가 있는 ‘협간정’(타락산) 등이 나타난다. 도성 주변에서는 ‘세검정’의 정자와 폭포, 그리고 장마철에 물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동국세시기」에는 도성 내부에서의 연등행사 때 남산과 북악에서 시내 야경을 구경하는 모습도 표현되어 있다.

특히나 다른 매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양한 놀이와 관련된 활동적 측면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

표 3 _ 풍속지와 한양가에 등장하는 경관명소의 분포

시기		조선 후기(1776년 정조 즉위 ~ 1897년 고종, 대한제국 선포기)				
매체		풍속지			가사문학	
분류 기준		한경지략 (1890년)	경도잡지 (정조 때로 추정)	열양세시기 (1819년)	동국세시기 (1849년)	한양가 (1844년)
한강 이북	도성 내부	백운동, 청학동, 필운대, 도화동, 유란동, 세심대, 수성동, 옥류동, 협간정, 가산(假山), 개천(開川), 옥의전, 종루 시전, 배오개 시전, 칠패 시전, 팔패 시전 등	필운대의 행화, 북둔의 복사꽃, 흥인문 밖의 버들, 천연정의 연꽃, 삼청동 탕춘대의 수석, 숙청문	필운대 세심대	수표교, 종각, 만리동고개, 필운대, 흥인문 밖, 북악산의 신문문 뒤, 청풍계, 후조당	명륜당(성균관), 존경각, 광통교, 구리개(을지로), 조양루, 석양루, 명선루, 흥업정(남산 기슭), 송석원, 영파정(이화동 이화장 앞), 필운대, 상선대, 옥류동, 도화동(성북동), 창의문, 탕춘대, 북일영, 군자정, 큰광통교
	도성 주변	서지(西池), 동지(東池), 남지(南池), 세검정, 천연정, 산단(山壇), 쌍회정	남산	남산-잠두	남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칠패(용산구 청파동 일대), 춘조정, 세검정, 옥천암, 한북문, 진관사, 월계
한강 주변	동호 · 상류	제천정, 낙천정, 화양정, 황화정, 유하정, 압구정, 독서당, 살곶이벌				두미(하남 미사리), 춘수루(쇄라튼위거힐)
	남호 (용산강)	칠덕정				
	서호	망원정, 영복정, 담담정				창랑정, 탁영정, 읍청루
기타 외곽					남한산성	

자료: 연구 대상 매체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

다. 구체적 내용으로 「한경지략」에는 도성 내부 ‘필운대’에서의 풍월과 함께 ‘화개동’은 술과 시 읍기 좋은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수성동’은 골짜기가 깊고 그윽해서 물 맑고 바위 좋은 경치가 있어서 더울 때 소풍하기 제일 좋은 곳으로 표현되어 있다. 남산의 ‘쌍회정’에서는 단풍놀이를 하는 풍경이 표현되었다.

도성 주변에서는 단오 씨름 장소로 시정 사람들이 많이 모여 구경하던 남산기슭의 ‘산단(山壇)’이 표현되었다. 「경도잡지」에도 남산 기슭에서 씨름을 하는 모습과 여항에서 부녀자들의 그네뛰기 등의 풍경이 표현되었다. 「열양세시기」에는 남산의 ‘잠두’와 ‘필운대’, ‘세심대’에서 삼월에 꽃놀이를 하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이들은 ‘대’라는 명칭에서 보듯, 이들은 모두 주변보다 높은 전망 장소로 꽃놀이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이며 주로 서촌과 남촌 부근으로 장안에서 원림이 가장 발달한 곳들이기도 하다.

풍속지에 나타난 경관명소들이 대부분 서촌 부근인 것은 다른 매체들의 경우와 부합된다. 다른 점은 각 장소가 시각 경관적 측면만이 아니라, 늘 여가활동이나 세시풍속과 결부되어 그 가치가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단오 행사 등은 도성 중심부와 남산 인근에서, 그밖에 ‘다리밟기’와 ‘연싸움’ 등 집단적 놀이는 시가지 중심부가 근처인 종각, 수표교 부근에서(동국세시기) 행해지는 등 도심부의 활동이 강조되는 것은 다른 매체의 내용과는 다르게 조선 후기에 활성화된 도시생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경지략」에서 육의전의 품목별 시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종루, 배오개, 칠패, 팔패 등 장안 유명 시전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2) 가사문학에 나타난 경관명소의 인식

한산거사의 「한양가」는 19세기 한양의 풍경을 만화

경처럼 담아낸 가사다. 「한양가」는 한양의 지리적 위치 및 역사적 유래, 궁궐의 모습 및 각 관청, 시전(市廛), 각종 승전(承傳)놀이, 능행(陵行), 과거(科擧),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조선 후기 성시문학의 경향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시장과 유희’라고 하고 있다(정인숙 2011; 최은숙 2012).

즉, 조선 후기 성시문학을 대표하는 장소는 시장이다(권정은 2013). 이 시기는 도시화의 진행과 더불어 도시 상업과 유희의 발달로 배오개, 종로, 칠패 등 3대 시장이 변성하고 각 처의 유상처나 놀이터가 나타나게 된다. 「한양가」 등 가사문학 작품이 다른 매체들과 다르게 특징적인 것은 시장의 모습과 농업, 조운 등 생업활동과 관련된 장소를 경관명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놀이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성 내 여러 시장은 물론, 단오 때의 씨름, 부녀자들의 그네뛰기, 연싸움, 다리밟기, 편싸움, 화류놀이 등 다양한 놀음이 이루어진 곳들을 명소로 인식하고 있다. 고동환(2006)은 “이는 조선 후기의 도시화와 상업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한양에서 이루어진 유희는 계급의 경계를 넘어서 확대된다. 선비, 한량, 포교 등 사회집단별 놀이는 물론, 특히 일종의 사설 금융기관인 공물방(貢物房)의 ‘선유놀이’는 공물납품을 전담하는 공인들이 주로 하는 경강 지역의 유희거리였다. 그 외 놀이의 장소로서는 누대와 계곡, 성 내, 성 외의 유상처와 경강 주위의 누정까지 나열된다(남정희 2012).

「한양가」에서는 ‘조양루’, ‘석양루’, ‘명선루’, ‘홍엽정’, ‘송석원’, ‘영파정’, ‘필운대’, ‘상선대’, ‘옥류동’, ‘도화동’, ‘탕춘대’, ‘군자정’에서 행해진 각종 놀음이 표현되어 있다. 도성 주변의 ‘춘수루’, ‘춘조정’, ‘세검정’에서도 각종 놀음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도성 내의 대중적인 경관명소들이다. 그리고 도성을 벗어난 한강의 서호에서는 ‘창랑정’, ‘탁영정’,

‘읍청루’에서 각종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시장과 같은 생업활동과 관련된 장소가 중요 경관명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앞의 풍속지와 공통된 특징이다. ‘배오개’, ‘종로’, ‘칠패’ 등이 보여주는 분주하고 현실감 있는 장면들은 조선 초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차별화된 역동성을 선사한다(권정은 2013, 151). 구체적 내용으로는 ‘칠패시장’에서 생선 가게의 각색 생선에 대해서, ‘남문 안 큰 모전’의 각색 실과, ‘수각(水閣)다리’ 너머의 각색 상전, 그리고 ‘큰 광통교’ 너머 육주비전에 대해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명소를 인식하는 데 단지 자연의 풍치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과 의미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조선 후기의 새로운 양상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 사회가 보다 개방적으로 상업화, 도시화되면서 계급의식이 약화되고 한글소설이나 「한양가」와 같은 새로운 대중적 문화양식들이 자리 잡아가면서 나타나는 미의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의 문학과 미술에서 볼 수 있었던 자연, 인문환경의 시각 경관적 가치에 더해 조선 후기에는 민중들의 놀이와 상업활동 등 보다 도시 생활적 현상들이 경관명소를 만드는 새로운 매력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여가문화의 자생적 근대화 과정의 일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VI. 종합: 매체별 · 시기별 경관명소의 분포와 인식

서울을 주제로 한 팔경시에 있어 조선 초기에는 주로 팔경이라는 복수 시점을 통해 서울의 제도권적 대표 경관들을 집약하는 ‘지역팔경형’의 형식이 우세하였으나, 중후기에는 급격히 늘어난 누정 등 다양한 조망 명소에서 바라다보이는 사방의 시각적 대상들을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조망팔경형’의 형식이 점증하게

되었다. 조선 중후기에는 팔경시의 대상이 도성 내 궁궐 주변 사대부의 세거지나 성시원림들로 확장되고(「근가십영」, 「국도팔영」 등), 도성 외 한강 주변의 누정을 주 조망점으로 하는 ‘조망팔경형’의 팔경시들이 동시에 늘어났다. 특히, 팔경시는 개인의 저작이기는 하나 누정에서의 시회(詩會) 등 집단적 의사교환 등을 통해 보편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경관명소로서 누정의 사회문화적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상류층의 생활이 반영된 것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나, 후기에 오면서는 ‘송석원’ 등 누정원림을 중심으로 시회의 주체 세력으로 중인이 참여하는 등 경관명소 인식의 중심이 점차 평민 쪽으로 이동해가고 있었다.

검재의 화첩에서 서울의 경관명소들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다루어졌다. 하나는 도성 내부 본인의 주거지인 서촌 주변의 점적인 경관명소들을, 또 하나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 근교의 거시적 경관을 각각 팔경식으로 정리한 것이 그것이다. 전자와 후자는 각각 팔경시에서의 ‘지역팔경형’과 ‘조망팔경형’에 비견될 수 있다. 비교적 후기에 등장하는 원경 조망이 강조된 그림들은 동시대에 성행하기 시작하였던 차경형 원림과 상호 심미적, 사회적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조선 후기, 풍속지나 가사문학 매체들에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조선 전기에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던 가로와 시장 등 생생한 삶의 현장과 그곳에서의 도시 상업, 놀이와 연회 등 활동적인 도시문화들이 장소별로 그려지면서 도시의 새로운 활동형 경관명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매체별로 등장하는 경관명소들의 분포를 위와 같이 <그림 4>와 <표 4, 5>로 정리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종합적 판단을 해 볼 수 있다. 도성과 그 주변을 포함

한강북 지역이 한강 주변을 조금 웃도는 빈도수를 보이고 있으나 경관적으로 보아 거의 대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시성이 높은 남산은 전 경관명소를 통틀어 여러 매체에서 최다 빈도를 보였고 그다음으로 도성 내부 경복궁과 인왕산 밑의 서촌지역과 도심 시장에 최대 밀집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 주변은 동호가 최다, 그다음에 서호, 남호의 순으로 빈도수가 반감되어 갔다. 동호의 다양한 지형 경관과 체천정, 독서당 등 공공시설들이 경관 인지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대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경관명소에 대한 관점은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그 대상이 국가적 관점에서 개인적 관점으로, 권위적 기념성에서 개방적 조망성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자연적 경관에서 도시적 경관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변화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자생적인 도시화, 상업화, 근대화의 과정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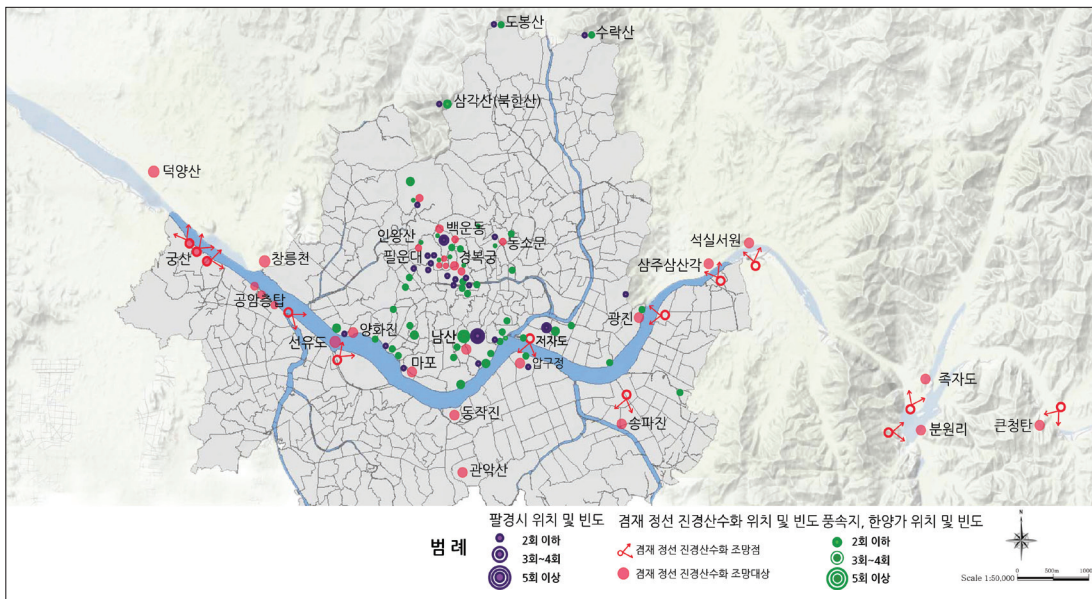
VII.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조선시대 서울 경관명소들의 실제적 분포와 그 이미지를 옛 서울 사람들의 시가와 그림, 풍속지들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였고, 그러한 서울의 원형적 경관문화가 현대 서울 도시 경관의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적 관점이 되기를 바랐다.

조선시대 전반의 경관명소 분포와 인식 양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성 내부의 경관명소들에 대한 인식은 초기에 제도권적 시설들인 도성, 궁궐, 육조거리에서 시작하여 운중가와 청계천 등 도심 상업공간으로 연장되었고, 후기에는 서촌 지역을 비롯한 궁궐 주변의 거주지 내 성시원림 등의 명소로 확장되었다. 도성 주변으로는 남산과 인왕산을 비롯하여 멀리 삼각산과 관악산 등 내사산과 외사산들이 두드러진 경관명소들로 인식되었다.

한강변의 경관명소들은 조선 초부터 동호, 서호, 남호 등의 경관 구역들이 호수 같은 정경들로 찬탄을

그림 4 _ 매체별 경관명소의 지리적 분포



자료: 연구대상 매체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

받아왔다. 이 중 동호의 제천정에서부터 서호의 희우정까지가 공식적 유상경로(遊賞經路)로 더욱 강하게 인식되었었다. 중기 이후의 진경산수화에서 상류로는 광주로부터 하류로는 행주까지 명소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이에는 당시 사대부들의 서울 외곽 별서 조성이 주요인이 되었다. 특히 동호의 위요된

호수 같은 경관과 서호의 잠두봉과 선유봉의 극적인 경관은 조선 중기 이후 가장 자주 그려진 조망형 산수경관이었으며 이들 또한 언제나 원경의 산들을 배경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한강변의 누정들과 경강 상업의 요충지인 각 나루터가 도시민의 활동과 함께 중요 경관명소로 인식되어 그려졌다.

표 4 _ 매체별 경관명소 빈도 분포 종합(빈도수)

매체	장소	한강 이북		한강 주변			기타 외곽	
		도성 내부	도성 주변	동호	남호(용산강)	서호	행호	광주군 양평군
팔경시		15	25	17	10	8	-	2
진경산수화		20	2	3	1	9	10	5
풍속지 한양가		53	14	10	1	6	-	1
계		88	41	40	12	23	10	8

표 5 _ 매체별 경관명소 분포 · 인식 종합

구분		팔경시	진경산수화	풍속지, 가사문학	지역별 종합
한강 이북	도성 내부	도성, 궁궐, 운종가, 청계천, 서촌(청풍계, 세심대 등)	서촌(청풍계, 수성동 외), 경복궁, 동소문	서촌(옥류동, 세심대, 청풍계, 송석원, 필운대 외), 종각, 개천, 수표교, 가산, 육의전, 광통교, 구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초기 팔경시에는 도성, 궁궐 위주 중기 이후 서촌 등장 후기 풍속지 등에는 시가지와 시장 강조
	도성 주변	남산, 삼각산, 도봉산, 아차산	남산, 인왕산, 세검정	남산(쌍회정, 잠두), 칠패, 세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산이 최다, 내사산, 외사산 위주 칠패시장 등장
한강 주변	동호 · 상류	제천정, 살곶이벌, 압구정	양수리(녹운단 외), 압구정, 광나루, 송파나루	제천정, 낙천정, 화양정, 압구정, 독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천정은 사신 유상장 살곶이벌 목장, 교장 압구정은 동호의 상징
	남호	용산, 동작진	동작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작진은 남해 요충지
	서호	마포나루, 양화진, 잠두봉, 희우정	양화진, 잠두봉, 선유봉, 난지도	망원정, 담담정, 영복정, 창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포나루 상업항 희우정(망원정)은 사신 유상장 잠두봉, 선유봉은 시각 초점
	행호 · 하류		덕양산, 소악루, 귀래정		
기타 외곽		관악산	관악산, 북한산	남한산성	
매체별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지역팔경형 중기 이후: 조망팔경형 우세, 성 내 주거지, 시가지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경시의 명소들과 부합 경관미와 인문적 가치 결합 조망팔경형 표현 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미와 활동적 가치 결합 놀이, 상업 등 도시적 활동장소로 경관명소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통치거점(궁궐) 중기: 조망거점(한강) 후기: 생활거점(주거지, 시가지)

조선 초기에서 중기까지 서울 경관명소의 인식과 소통은 주로 상류계급인 사대부 계층 간에 시가와 진경산수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분히 시각적, 문화적 측면에 치중된 양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그 당시 유행했던 풍속지와 풍속가사를 통해 볼 때, 평민들이 경관명소 인식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하면서 경관명소의 영역이 도심 상업가와 장터까지 확장되고, 그곳을 즐기는 방식을 과거의 시회(詩會) 중심에서 상업활동과 집단놀이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경관의 사회적 측면을 새로이 강화하였고 경관명소들을 도시민 전 계층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로 파악된 조선 시대의 전 기간에 걸쳐 일어난 경관명소 인식의 발전과 개방화는 현대 도시사회에서도 경관의 대중화를 통한 지역성 발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관식. 2006. 광주 정문과 장동김문의 세교와 겸재 정선의 <청풍계>. 美術史學報 26권: 119-149.

강영조, 배미경. 2002.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나타난 조망 행동: 진경산수화 100엽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0권, 5호: 1-15

고동환. 2006. 조선 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 연구 26권: 1-48.

권영민. 2004.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권정은. 2013. 조선시대 성시(城市) 관련 시·화(詩·畫)의 지향과 <한양가>의 차별성. 문학치료연구 29권: 139-168.

김한배. 1998. 우리 도시의 얼굴 찾기. 서울: 태림문화사.

남정희. 2012. 「한양가」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탐색. 한어문교 육 26권: 239-270.

노재현, 장일영. 2008. 실경산수화에 담긴 '같은 경관' 그러나 '다른 풍경', 그 의미 찾기: 18·19C 총석경 그림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6권, 5호: 82-9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59. 동국여지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안장리. 2009. 서울 팔경시 연구. 향토서울 74호: 127-165.

유본예. 1981. 한경지략. 서울: 탐구당.

이규목. 1994.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 서울학 연구 1호: 149-191.

_____. 2002. 한국의 도시경관. 서울: 열화당.

이종목. 2006. 조선의 문화공간1-조선초기: 태평성세와 그 균열. 서울: 휴머니스트.

이행. 1986. (신증)동국여지승람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임승빈. 1991.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정기호. 2009.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 중 시화도 열점에 대한 조망점과 대상경관의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권, 4호: 74-82.

정인숙. 2011. 19세기~20세기 초 시가를 통해 본 서울의 인식과 근대도시의 이미지화. 문학치료연구 20집: 165-193.

조규희. 2006a.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_____. 2006b. 별서도(別墅圖)에서 명승명소도(名勝名所圖)로: 정선(鄭澣)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5권: 192-223.

_____. 2008. 가원조망도와 조선 후기 차경에 대한 인식. 미술사학연구 257호: 105-139.

_____. 2012. 조선 후기 한양의 명승명소도와 국도명승의 재인식. 한국문화와 예술 10집: 147-194.

최기수. 1994. 서울의 경과 곡. 서울: 서울학연구소.

최완수. 2009. 겸재 정선 2, 3. 서울: 현암사.

최은숙. 2012. <한양가>에 나타난 한양경관과 장소에착성. 한국문화와 예술 10집: 5-31.

한산거사. 1994. 한양가. 서울: 민중문화사.

홍윤순, 이규목. 2002. 한양 원형 경관의 이원적 중층성 연구. 서울학연구 19호: 75-99.

동국세시기.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2014년 1월 22일 검색).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2013년 12월 17일 검색).

팔경시, 진경산수화, 한경지략, 경도잡지, 한양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13년 12월 17일 검색).

- 논문 접수일: 2014. 7. 16
- 심사 시작일: 2014. 7. 22
- 심사 완료일: 2014. 8. 11

요약

주제어: 지역팔경형, 조망팔경형, 장동팔경첩, 경교명승첩, 한양가

본 논문은 조선시대 서울을 대상으로 한 팔경시, 진경산수화, 풍속지 등을 통해 경관명소의 분포와 인식 양상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서울 팔경시는 조선 초기에 주로 통치시설 위주의 '지역팔경형' 경관을 통해 건국 이념을 표현하였고, 중기 이후에는 궁궐 주변 주거지 성시 원림과 한강 등 승경지의 누정에서 바라보이는 '조망팔경형' 경관을 표현하였다.

진경산수화는 조선 중후기 검재를 중심으로 서울의 경관명소들을 기록하고 표현하였다. 「장동팔경첩」은

서촌 지역의 기념적 장소들을 근중경적 시각으로 열거하여 팔경시의 '지역팔경형'과 상응한다면, 「경교명승첩」은 한강의 주요 조망점에서 중원경 위주의 개방적 경관을 그려 팔경시의 '조망팔경형' 과 유사한 표현을 보였다.

조선 후기 「한경지략」 등 풍속지들과 「한양가」 등 풍속가사는 평민들이 참여하는 유상지의 행락과 시가지의 상가와 시장에서 벌어지는 놀이와 상업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서울 경관명소들의 영역을 도시 일상생활의 장소들로 확장하였다.